



미 증시,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

미국 증시 리뷰

23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6 월 제조업 PMI 호조에 따른 경기 모멘텀 기대감이 유효했음에도, 경기민감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일부 연준 위원들의 2022 년말 금리인상 발언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2%, S&P500 -0.1%, 나스닥 +0.1%).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0.6%), 금융(+0.3%), 에너지(+0.3%) 등이 강세, 유틸리티(-1.1%), 소재(-0.6%), 필수소비재(-0.6%) 등이 약세.

미국의 6 월 Markit 제조업 PMI 예비치는 62.6 으로 전월(62.1) 및 예상치(61.5)를 상회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64.8 로 전월(70.4) 및 예상치(70.0)를 하회했으나, 미국 경기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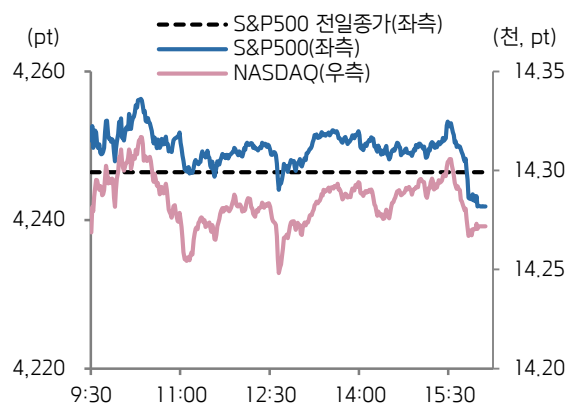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최근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금리인상은 2022 년말이 될 것이며 2023 년에는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도 2022 년에 금리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테이퍼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점에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23 일 시장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미국 증시 평가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 월 이후 연준의 성향이 비둘기파에서 매파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를 유발했던 것으로 판단. 다만, 전거래일 달려화나 시장금리가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시장참여자들도 연준발 불확실성을 점차적으로 소화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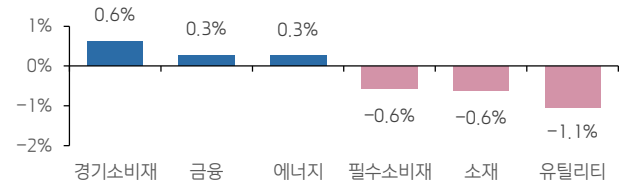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시장에서도 기정사실화된 재료이지만, 일시적 or 추세적인 고 인플레이션을 놓고 연준 내에서 상당기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분기 실적시즌 진입을 앞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실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나, 향후에도 수시로 인플레이션발 노이즈가 증폭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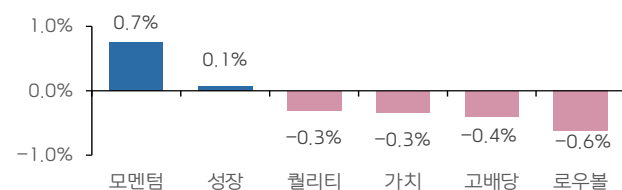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6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카카오, 네이버 등 최근 단기 폭등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2. 선진국 제조업 모멘텀 지속으로 인한 국내 수출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여부 3.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순매수 재유입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23 일(수) 코스피는 경기민감주들 위주로 차익실현물량이 출회됐으나,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완화, 미국 성장주 강세 등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네이버(+8.3%), 카카오(+6.6%) 등 고 밸류에이션 성장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함에 따라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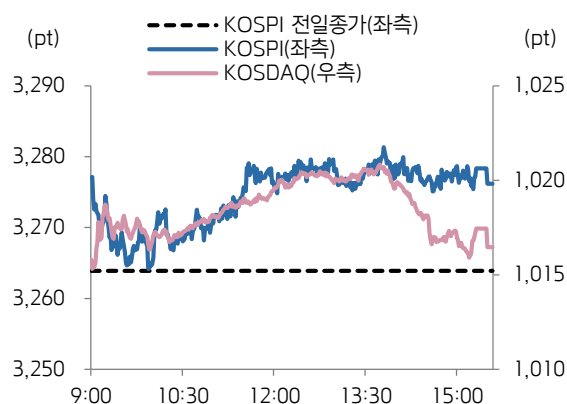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서비스(+3.7%), 의약품(+1.9%), 비금속광물(+1.3%) 등이 강세, 기계(-2.5%), 건설(-2.2%), 전기가스(-1.9%)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7 억원, 299 억원 순매도, 개인이 832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선진국 제조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호조 기대감 속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피크아웃할 것으로 예상됐던 6 월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가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은 선진국들의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국의 수출 실적 개선세를 연장 시켜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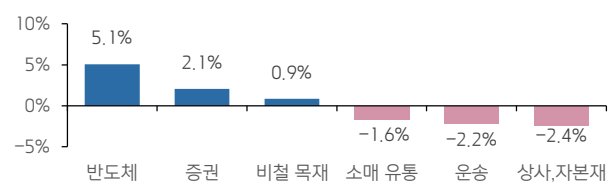
물론 여전히 매크로발 불확실성은 상존한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등 최근 단기 급등세를 보였던 일부 초대형 성장주들에서는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나, 업종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지수의 하단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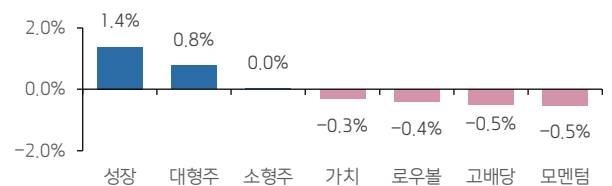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2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